

大邱大學校의 建學理念과 發展構想



李 泰 榮
(大邱大 總長)

I. 대구대학교의 성격

대구대학교에는 두 개의 캠퍼스가 있다. 그 하나는 교육의 옹도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원두에 자리하고 있다. 가정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의 4개 단과대학과 5개 부속학교, 노인 복지대학, 장애인재활원, 전국맹농아기술센터등이 자리잡은 아담한 대명캠퍼스로 대학본부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는 대지 156만평에 달하는진량벌이 수려한 풍치로 유명한 경산캠퍼스이다. 이곳 56만평의 넓은 문천지는 전국의 조정경기장으로도 이름이 있다. 여기에는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의 4개 단과대학이 있으며 주변에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하여 효성여자대학교, 대구한의과대학 등이 이웃하고 있다.

1. 건학이념

1946년 4월 19일 영광학원 재단은 진실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익히고, 진리의 탐구로 인류의 길을 밝히는 「빛」을, 빈곤과 질병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건학이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은 「사랑」, 「빛」, 「자유」이다.

1956년에는 한국사회사업대학이 탄생되었고 1982년 3월에 오늘의 대구대학교가 이룩되었다.

본 대학 출신으로 민족문화를 위한 봉사상(奉仕賞)은 받아도 인간의 정의를 벗어난 사람은 없다. 대구대학인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을 감사하고 복됨을 자각하여 봉사의 기쁨을 누린다. 집념을 삭이고 보다 크고 보다 멀리 바라본다. 무엇보다 먼저 양식(良識)을 가진 법인이 되는 것이다. 대구대학교인은 만인의 신뢰를 받으며 언제나 선각자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 날쌔고 굳건하게 굽히지 않는 대구대학교의 표상인 비호상을 닮고 있다.

2. 건학정신

본 대학은 높은 인류애의 정신적 기반 위에서 진리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류공통의 꿈인 만인의 복지를 구현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소유한 지성인, 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데 건학의 정신을 두고 있다.

「큰 뜻을 품어라」고 하는 교훈은 바로 이와같은 인간애의 정신 바탕위에 만인의 복지와 개인의 행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높은 이상과 실천의 힘을 가진 역군이 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자는 뜻이다. 현대의 고도한 물질문명

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한 생활환경의 파괴, 인간성의 상실, 각종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생 등은 인간애의 실현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실천을 한층 더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새로운 정신적 기반과 문화창조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지성과 정열로써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많은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파이오니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본 대학 및 대학원의 사명을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종합 "캠퍼스"를 건설하고 학문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질적 양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II. 발전계획과 방향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학은 그 자신이 갖는 고유 기능 즉,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능과 학문의 심화를 위한 연구기능 외에도 국가와 민족,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사회봉사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은 시대적 사회적 여건이 응집된 것들이며 이에 부응해야 하는 대학은 분업적 기능사회에서 하나의 전문적 직무를 감당할 만한 학문과 기술을 학생 개개인에게 전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참여와 봉사

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현상은 이미 18C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조한 미국의 대학정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에 그 기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대해 대학은 평생교육, 사회교육, 순화 및 방문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하여 왔었다.

본 대학에서는 이러한 실천교육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예컨대 양현제—고시반 지도원—외국어 지도원 직업지도실 등)과 직업보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학생복지 시설의 확충과 유능한 교수의 초빙, 과감한 교육개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및 국가와 인류를 위한 봉사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왔다.

1. 편제 및 시설

1)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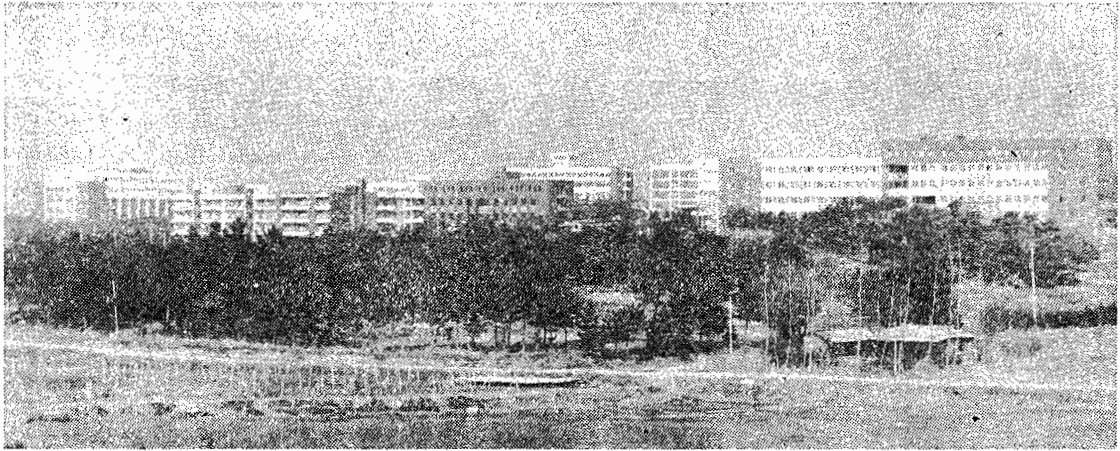
가. 교육기관(표-1 참조)

나. 부속기관 : 중앙도서관, 박물관, 점자도서관, 신문사, 교육방송국, 출판부, 전자계산소, 시청각교육실, 전국명농아기술교육센터, 재활원 기타

다. 연구소 : 10개(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상문제, 산업기술, 사회복지, 특수교육종합, 재활과학, 새마을·지역사회개발, 평화통일, 학생생활연구소)

<표-1>

기 관 명	과정 및 대학	학과 및 전공수	학생수	비 고
대 학	8 개 단 대	45개학과 6개전공	11,795명	인문, 법정, 경상, 사회과학, 이공, 사법, 가정, 미술
대 학 원	박 사 과 정	5 개 학 과	68명	
	석 사 과 정	10 개 학 과	210명	
사회개발대학원	석 사 과 정	2개학과 10개전공	120명	
계			12,193명	



라. 사회교육기관(표-2 참조)

〈표-2〉

기 관 명	소속 연구소명	소 재 지	교육내용 및 대상	비 고
노인 복지 대학	사 회 복 지 연 구 소	대구 대학교 대구 캠퍼스	노년기의 제반문제에 대 한 교육	대학, 대학원, 장 수대학원
방문 교육 대학	새마을·지역사회개발연 구소	"	재소자, 나환자, 불우청 소년들에 대한 교양강좌	
가정 복지 대학	사 회 과 학 연 구 소	구미 여성회관	산업체 근로여성들에 대 한 신부예비교육	

2) 시설(표-3 참조)

〈표-3〉

(단위 : 평)

구 분	대구 캠퍼스	경산 캠퍼스	계	기 준	확보율(%)
교 지	8,994.75평	344,672 평	353,666.75평	159,448.95평	222
교 사	17,209.06평	14,680.73평	31,889.79평	24,201.95평	132
자연 교장	.	560,000 평	560,000 평	.	0
과 학 관	.	.	0	364 평	0
박 물 관	181 평	.	181 평	181 평	100
강 당	1,709 석	.	1,709 평	2,367.5 평	72.2
체 육 장	1,000 평	4,325 평	5,325 평	5,989.5 평	88.9
도 열 램 석	.	.	1,200 석	1,692석	70.9
서 장 서 량	.	.	179,426 권	338,400권	53.0
관 학술잡지	.	.	439 종	225종	195.1

2. 확장계획

1) 편제

가. 단과대학 : 2개 (사회복지대학, 농과대학)

증설

나. 전문대학원 : 2개 (교육대학원, 산업대학

원) 증설

다. 연구소 : 4개 (기초과학, 가정, 미술, 농
학에 관련되는 연구소) 증설

라. 기타 :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복지공장, 개
방대학 등 증설

2) 시설(표-4 참조)

<표-4>

구분	대구 캠퍼스	경산 캠퍼스	계	비고
교지	.	655,328평	655,328평	
교사	.	43,000명	43,000명	
과학관	.	425명	425명	
박물관	.	360명	360명	대구캠퍼스에서 이전
강당	.	3,500석	3,500석	실내체육관 겸용
체육장	.	10,675명	10,675명	종합경기장
도서관	열람석 장서량 학술잡지	.	.	1,371석 540,574권 431종

3. 완성연도(1991년도)

1) 편제

가. 대학교: 10개 대학, 63개 학과, 학생총수 18,772명

나.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다. 전문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라.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박물관, 점자도서관 등

마. 연구소: 14개 연구소

바. 사회교육기관: 3개 기관

2) 시설(표-5 참조)

4. 주요사업계획

1) 캠퍼스의 확충

가. 종합복지교육단지 조성

나. 평생교육을 위한 개방대학 설치

2)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및 복지공장 건립

3) 심신장애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계몽 및 운동

Ⅲ. 실험적 계획

1. 교육과정의 개편과 개선

1) 목적 및 개선방안

본 대구대는 일차적으로 교양과정을 개편하고 다음에 여러 분야로 전공과정을 개편 운영함과 더불어 교수방법도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양과정 개편은

① 올바른 교양교육의 실현과 교육내용의 내실화

<표-5>

구분	내용	대구 캠퍼스	경산 캠퍼스	계	기준	확보율(%)
교지		8,994.75평	1,000,000평	1,008,994.75평	374,448.95평	269.46
교사		17,209.06명	57,680.73명	74,889.79명	33,353.2명	224.5
자연교장		.	560,000명	560,000명	.	.
과학관		.	425명	425명	364명	116.8
박물관		.	360명	360명	181명	198.9
강당		1,709석	3,500석	5,209석	4,693석	121.3
체육장		1,000명	15,000명	16,000명	5,989.5명	267.1
도서관	열람석	.	.	3,080석	2,815.8석	109.4
	장서량	.	.	720,000권	563,160권	127.8
	학술잡지	.	.	870종	315종	276.2

②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③ 대학교육 내용, 수준의 향상 및 면학풍토 조성

등의 목적으로 개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은 전공교육을 통한 각분야의 전문인 양성에 선행하여 보다 폭이 넓은 인간교육의 측면에서 첫째로,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게 하고, 둘째로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양식(良識)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하며, 그리고 세째로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택한 것이다. 과목은 자신의 견해를 어느 정도 명백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 기본적인 정보 혹은 서류의 해독과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입장을 인식하며 무수하게 쏟아지는 각종 정보와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선택하고 사고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들을 교양 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2) 교육과정 개편 추진 기본계획

가. 언어와 문자

국어국문학에 대한 통시적 이해와 언어예술의 심미적 훈련을 쌓게 하며 표현과 사고의 언어적 형상화를 숙지시킴으로써 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강좌는 고전문학의 이해와 감상, 현대문학 이해와 감상, 문학의 원류적 접근, 언어와 민족, 문장과 문체의 이해, 문장(1) 혼련(1)(2) 등의 유형을 이룬다. 특히 문장 혼련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문장혼련(2)는 인문 사회분야에서 이수토록 한다.

나. 외국어와 외국문화

실용외국어를 익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국제문물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강좌는 실용영문의 이해, 영어와 영미문화,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분류 실시한다. 강좌 중 영어와 영미문화는 학기당 1학기씩 2학기간 강의하고, 실용영어의 이해는 강의 없이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여 매년 2회 실시되는 학점취득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케 한다. 응시 시기는 학생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응시 회수

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 철학과 사상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즉 세계관, 국가관 그리고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서양의 철학과 윤리적 비판적 사고방법을 길러준다. 강좌는 철학사상과 등서철학의 비교적 이해를 돕게 한다.

특히 이 강좌는 재래식 개론방법을 전적으로 지양하고 ㉠ 서구 철학사의 바탕위에 동양철학을 연대적으로 또는 사상계열별로 비교하며 동시에 우리 조국의 역사와 한국철학사상을 비교하여 더욱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 가급적이면 주당 3시간을 세분야로 나누어 서양철학, 동양철학, 과학철학 등으로 강의를 진행토록 한다.

라. 자연과 인간

자연의 제현상과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합리적 사고방법을 길러 인간과 자연의 미래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강의 내용은 과학의 흐름, 에너지와 인간생활, 물질의 변화와 환경, 그리고 인간 생명과 영속성 등이다.

마. 민족과 역사

종래의 교양국사 강의가 고등학교 교육의 연장이라는 인식을 주어 왔으므로 이것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모두 역사적 사실을 민족에 결부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강의 내용은 한국사의 이해, 선사사회와 민족의 형성, 고대국가의 형성과 민족의 통일, 부족국가와 민족의 칙체, 일제의 칙략과 민족의 각성, 근대국가로서의 전환, 민족주의의 성장, 서양문화의 발전 그리고 동양문화의 발달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바. 현대사회와 윤리

이 강좌의 설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와 생활태도를 대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문화에 공헌하는 세계속의 한국인을 교양하는데 있다. 강좌는 현대사회 분야와 윤리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전자는 과학과 기술, 기술과 사회, 기술과 정치로서 그 확립, 후자는

국민윤리 I 과 국민윤리 II로 구분하여 4학점을 이수케 한다.

이상의 6개 과목 중 자연과 인간의 과목은 1982년 2학기부터 경상대학, 법정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 이미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 점을 기초로 하여 나머지 5개 과목은 1983년 1학기부터 실시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3)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전략

가. 교양교육 담당교수의 역할

ㄱ. 교양교과목 담당은 원로 혹은 중진 전임 교수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충용할 경우에는 원로 혹은 중진교수에 준하는 외래교수로 맡게 한다.

ㄴ. 동일과목이 수 개의 분반강의로 진행될 경우 반드시 전임교수로서 책임교수(조정관)를 선정하여 다른 교수 및 강사를 지휘 감독한다.

ㄷ. 전임교수에 의한 교양과목의 담당에 대해서는 적당한 대우와 조치가 수행되도록 한다.

나. 교양교육 담당교수의 워크샵 실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과목의 내용을 분석, 토론, 연구하고 강사 전원이 교과목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이해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한다. 교양과목 담당교수들은 워크샵을 통해 자질 향상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히 방학을 이용토록 권장한다.

다. 교양교육의 평가

교양교육의 평가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택한다.

ㄱ. 현재의 객관적 문제위주의 시험에 주관식을 가미토록 한다.

ㄴ. 현재의 시험기간 1시간의 범위를 2시간 정도 행함으로써 주관적이며 논문식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한다.

ㄷ. 평점의 다양한 근거로서 시험성적, 강의태도, 세미나 또는 과제물 참여도 등도 함께 평가한다.

ㄹ. 시험을 현재의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2번 치루던 것을 회수의 다원화를 통하여 가능

하다면 간단한 테스트도 함께 실시하게 한다.

ㄱ. 시험의 답안지는 채점 후 해당 수험생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게 한다.

ㄴ. 시험 채점의 객관화를 위해서 강의 담당 교수의 공동출제와 공동채점의 방법을 가미하게 한다.

라. 교양교육 접수방법의 개선

ㄱ. 교양교육의 강의를 복합강의의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ㄴ. 조교의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인 토의와 열의를 진작시키게 하고 교수의 학문적 강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ㄷ. 분반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강의의 교수요목에 매주 매시간마다 토의사항을 사전에 제시함과 동시에 여기에 연관되는 참고도서도 함께 소개한다.

ㄹ. 학생들은 30명 전후의 단위내에서 주어진 매주의 과제물 함께 토의한 후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매주 담당교수에 의하여 평가하게 한다.

2. 학생지도 활동의 정착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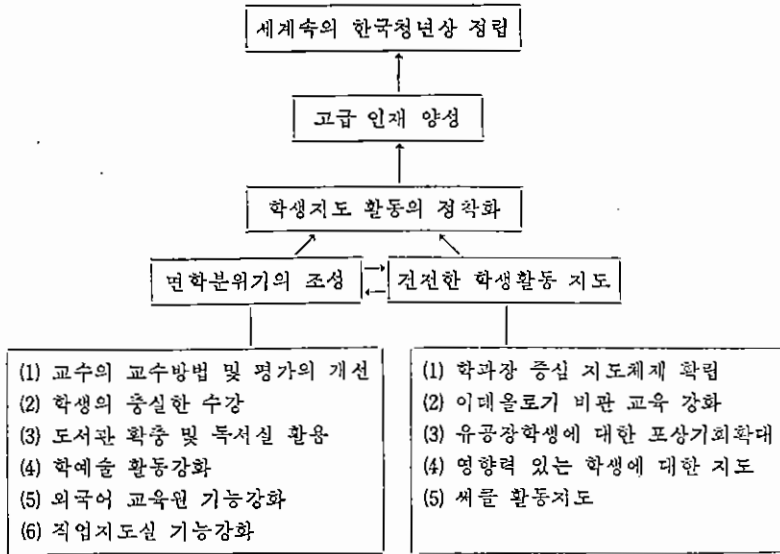
학생지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그림과 같이 면학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학생 활동의 지도로 대별하였다. (표-6 참조)

1) 면학분위기 조성

① 교수의 교육방법 및 평가 관리를 개선한다. 다양한 강의방법, 각종 과제물 부과에서부터 예습 복습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항상 책과 벗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성적평가 역시 정기 및 수시로 행하여 항상 타당성 있고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격정을 기하여 학생들의 신임을 얻도록 한다.

② 학생들은 스스로 강의를 충실히 받도록 뒷받침 한다. 교수방법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서 학생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격려하여 더 나은 성장을 이룩하도록 장학수혜를 확충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국민학생에게는 역시 베풀어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면학하는 자세를 함양하고 이러한 학생들

〈표-6〉



이 주축이 되어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③ 도서관 시설 확충 및 독서실 활용에 관한 것으로서, 본교는 금년에 초대형 중앙도서관을 완공하여 최적의 분위기에서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과마다 독서실 운영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 독서실은 학과교수연구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설정하여 교수와의 면담을 기다리며 독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므로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학예술 활동을 강화하여 폭 넓은 경험을 쌓도록 한다.

학과중심의 학술활동 강화, 단과대학 중심에 맞는 초청학술강연회, 폭넓은 교양을 위한 전체 학생들의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등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⑤ 외국어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방학 중에도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이 활발하여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으며 성과가 있었으므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청각 교재를 보충한다.

⑥ 직업지도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평소에 연마한 실력을 현실 사회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상설 기구화하여 졸업후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한다.

2) 건전한 학생활동 지도

대학교육은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도적 인격도야의 바탕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각종 수련활동, 취미, 오락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정규수업 이외에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 경험을 확대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활동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하향식이기 보다는 항상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파생적 상향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가. 학과장 중심 지도체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교과목이 학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학과교수들이 학생지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체계있게 지도한다. 매주 1회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특히 교수연구실에 주간 학생면담시간표를 제시하여 개방된 연구실에서 교수, 학생간의 격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학과장에게 학과 학생들의 상벌, 장학, 취업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 교수 지도 체제를 확립한다.

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미래의 청년지도자 상이 정

립되도록 추진한다.

다. 유공학생에 대한 각종 포상기회의 확충은 학교의 명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 및 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친 학생들에게 장학, 포상등을 행함으로써 더욱 더 미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영향력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는 학도호국단 간부와 지도교수 신문기자와 전문방송인 및 편집국장 등의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각종 수련회 및 연수회 학생간부회 등을 통하여, 또한 학과 대표들과 학과장 및 학장을 중심으로 학과 내의 문제있는 학생들을 학생과 더불어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 써클활동 지도는 써클활동이 대학생으로 하여금 인간적 성장과 자율적 행동을 체험하여 지도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쌓고 자기정체 확립을 도우며 사회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교수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비를 배려하고 건전하게 활동하는 써클에 대해서는 지원 육성책을 강구한다.

3. 연수 및 교류

우수한 교수의 초빙과 재직교수들의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의 지원 등이 대학발전의 지름길인 동시에 중요한 과제이므로 매년 해외 여러나라에서 모셔오거나 적어도 특강이라도 해주시는 교수의 수효가 30명을 넘는다.

또한, 재직 교수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근무기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어떠한 교수라도 해외 유학 및 연수의 길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외에 본 대학교 현직교수 해외 유학 및 파견 계획에 의거 매년 자매교인 미국 Ashland 대학 및 독일의 Kiel 대학에 교환교수 및 학위과정 이수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에 파견되지 않는 국가는 별로 없다. 앞으로는 그 인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새로운 연구설비의 도입, 신속하고 풍부한 학술자료의 확보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며 개방적이고도 자유로운 대학행정을 실시하여 교수연구활동과 학생들의 면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다.

4. 복지시설 계획

본 대학은 한국 특수교육의 요람이다.

본 대학 조성은 언제나 교사(校舍)와 기숙사, 교직원 APT, 연구소, 복지회관 등이 동시에 건설되며 교통의 편의 등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감안하여 계획되고 설립되어 왔다.

본 대학 내에는 한국 최대의 점자도서관이 있어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간행하여 모든 맹인에게 대여하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을 점역(點譯)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맹농아기술포육센터와 재활원이 있다. 대구 대명캠퍼스 외에 100만명이 넘는 경산캠퍼스에 심신장애자 재활단지를 조성하고 장애자 재활공장 등 세계적인 재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20명 이상의 관계교수 및 직원이 해외연수를 받아오고 있다.

Ⅳ. 발전 구상

본 대학은 학원장이셨던 故 성산 이영식 목사님께서 일생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룩해 놓은 피와 땀의 결정이며 그분은 공존공영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랑, 빛, 자유의 이념적 대학의 발판을 다져 놓으셨다.

본 대학은 전인류적 차원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하여 인간에게 봉사하며 인류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인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화합속에서 시대에 부합하고 민족역사를 개척해 나가며 인류복지의 이상을 설계하는 전당을 세워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풍부한 학술자료와 시설을 갖추고 불편없는 지원과 학생들의 아름다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업보도 등 명실공히 내실있는 대학의 꿈을 실현시켜 교수님을 위시한 교직원의 이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세계적인 장애자 재활원과 재활공장을 건립하여 인류의 이상의 일단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인류가 바라는 인재를 양성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생존에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며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대학인의 배출이 본대학의 이상인 것이다.*